

# “자기 본정신으로 살고 본정신 회복하는 것이 禪”



원각 스님이 그를 염화살로 부른 까닭은 단순히 차나 한 잔 마시자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 대연 거사를 오라고 한 것은 해암 스님의 유품을 보여주지 위 해서였다. 공개하지 않은 유품은 염화살 다락방에 보관돼 있는 모양이었다.

“우리 스님께 장좌불와를 하겠다고 약속한 거사 님에게 오늘은 제가 특별히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노장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룻밤 보내고 나니 원당암이 고향집 같은 느낌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있어 그런 거지요. 다락방에 보관된 노장님의 유품을 보신다면 신심이 더 날 겁니다. 다락방 유품들은 스님의 체취를 더 느낄 수 있는 손때 묻은 것들입니다.”

미소굴에 전시된 유품들이 스님의 기품을 상징하는 것들이라면, 염화살 다락방에 보관된 유품들은 스님의 일상적인 체취가 남아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였다. 원각 스님이 스위치를 누르자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비밀통로 같은 계단이 환해졌다. 염화살 다락방은 해암 스님이 살아생전에 잠깐씩 이용하던 공간으로 지금까지도 그때의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시자만 들어올 수 있는 신비로운 다락방이었다.

“노장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모습대로지요. 가사 장삼도 보자기에 싸진 채 그대로 있지요. 보자기를 펼쳐서 남김 없는 남기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즐생각이요.”

원각 스님이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의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더욱 은밀한 공간으로 보였다. 원각 스님은 가구 서랍까지 열어 보여주었다. 서랍 속에는 해암 스님이 사용하던 모지뿔과 낙관, 도장 등이 가지런히 정돈돼 있었다. 그리고 책상에는 조사어록과 대장경 등이 꽂혀 있고, 하단의 유리장 안에는 스님의 가사장삼을 싼 보자기가 들어 있었다. 다락방 한쪽에는 조그만 금고도 보였다. 해암 스님은 법문 사례비를 받아와 꼬박꼬박 넣기만 했고, 그 당시 원주였던 각간 스님은 불사 빛 같노라고 열기만 했다는 바로 그 금고였다.

소파처럼 긴 의자도 하나 있었다.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의자였다. 그러나 장좌불와를 하는 해암 스님은 결코 의자에 누운 적이 없었다. 대중들이 잠자는 밤중에 혼자 다락방으로 올라와 의자에 앉아서 조사어록 등을 보았다고 한다. 원당암 모든 방사에 불이 꺼진 한 밤중에 염화살 다락방은 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던 것이다.

다락방의 계단을 내려는 대연 거사는 묘한 기분에서 시작됐다. 원각 스님이 계단의 스위치를 누르자 그곳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고, 자신은 밝은 공간으로 나와 있었던 것이다. 해암 스님이 살았던 과거 시간으로 갔다가 갑자기 튕겨져 나온 느낌이었다.

염화살 큰방으로 돌아와 차를 몇 잔 마시고 나서야 그런 느낌이 사라졌다. 대연 거사는 틈틈이 원각 스님이 어떤 사연으로 해암 스님을 만났는지 궁금했다. 어떻게 해암 스님의 제자가 됐고, 왜 은사가 머물렀던 방에 지금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스님께서는 큰스님과 어떻게 인연을 지었는지요.”

“고3 때였어요. 몸이 안 좋아 약수암으로 공부하러 왔다가 인연이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몸을 쉬

고 추스르러 왔다가 살 길을 찾은 것이지요. 진짜 공부하는 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니까요.”

원각 스님은 자신의 지난 인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불문에 들어 비로소 살 길을 찾았다고 느낀 말투로 회고했다. 특히 해암 스님을 처음 만났던 해인사 산내암자였던 중봉암을 잊지 못했다. 중봉암 밤하늘에서 푹푹 떨어질 것 같았던 별들을 떠올렸다. ‘아! 굉장한 별빛이었지요’ 하고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얘기를 했다.

그 무렵 해인사 약수암에는 세 명의 학생이 살았는데, 중봉암에 살던 해암 스님의 상좌 도림 스님이 가끔씩 약수암으로 내려와 이런 저런 얘기를 들려주곤 했다고 한다. 하루는 서울대 법대 4학년이었던 합천군 국회의원 아들 변을수 대학생이 고시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준비하기 위해 좀 더 조용한 중봉암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원각은 변을수 대학생의 집을 날라주기 위해 그곳까지 갔다고 한다. 그것이 원각에게는 출가의 씨앗이 됐다.

저녁을 먹은 뒤, 원각은 그날 밤 함께 짐을 날랐던 동아대 불자학과 도림 스님에게 불교이야기를 들었다. 원각은 도림 스님의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들었다. 동아대 불자학생이 잠든 뒤에도 원각은 도림 스님과 새벽 세시까지 얘기를 주고받았다. 도림 스님의 불교 얘기가 원각의 가슴에 절절하게 와 닿았던 것이다.

“군인들이 월남에 파병할 때였지요. 강재구 소령이 수류탄투척훈련 중 사병이 잘못 던진 수류탄을 안고 많은 병사들을 살린 적이 있는데, 그 미담이 당시 신문이나 방송 등에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께서도 강재구 소령처럼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고, 어디를 가나 강재구 소령 얘기를 했지요.”

사회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집단화된 강요는 마음이 어떤 원각을 괴롭혔다. 결국 그런 강박관념은 원각의 심신을 허약하게 했고, ‘내가 공부할 열심이 해서 대학에 들어간다면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고 스스로 고민케도 했다. 지나칠 정도로 과민해졌고 대학입시 공부 자체를 혼란스럽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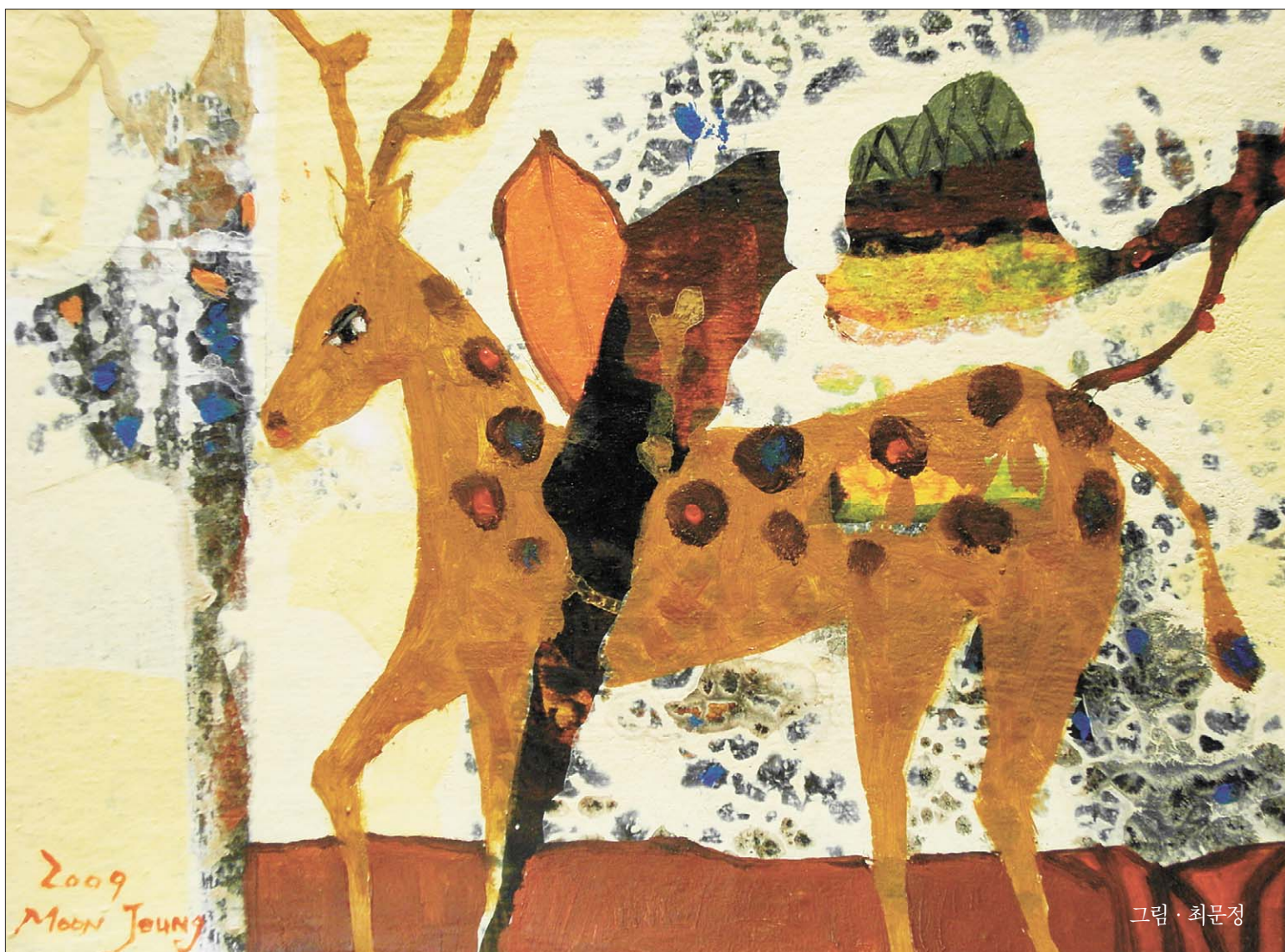
그런데 그때 도림 스님은 원각의 고민을 다 듣고 나더니 학교나 사회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얘기를 했다. ‘착한 것도 버리고 악한 것도 버려야지 바르게 사는 것’ 이라고 말했다. 선(善)도 악(惡)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 자리가 본래자리라는 것이었다.

원각은 ‘아!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고 회의를 느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부질없는 집착이었음을 알고는 원각의 고민은 단박에 깨졌다. 그런 강박관념을 쉬는 순간 자신을 괴롭히던 체증이 쏙 내려갔다.

도림 스님이 보기에 원각의 얼굴은 중봉암을 올라올 때와 달랐다.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 있었다. 도림 스님은 중봉암을 내려가는 원각에게 소천 스님의 <금강경강의> <반야심경강의>, 한길로 법사의 <육조단경> <보조법어>와 <법구경> 등 다섯 권을 주었다.

원각은 약수암으로 내려와 대학입시 공부를 접고 가을 내내 도림 스님이 준 다섯 권의 책만 읽으며 불법의 진리에 빠져들었다. 그러자 약수암에 들렀던 도림 스님이 출가를 권유했다.

“겨울에 도림 스님을 따라 중봉암으로 올라가니



## 원당암 어둠에 잠겨도 해암 스님 염화살 늘 환해

### “수행도 하나 하나 다져야 샅된 것이 덤비지 못해”

까 바로 삭발해주고 승복을 주었지요. 고무신도 한 켤레 주었고요. 그날부터 도림 스님 밑에서 두 달 말 행자생활을 했지요.”

그때가 1966년 겨울이었다. 도림 스님과 겨울을 나고 있는데, 40대 후반의 해암 스님이 통도사 극락암에서 동안거를 하고 중봉암으로 왔다. 1967년 2월 15일(음력)이 지난 며칠 후의 일이었다. 그런데 해암 스님이 오고 나서 무슨 꾸지람을 들었는지 도림 스님은 전강 스님 상좌로 옮겨 가 법명도 봉월 스님으로 바뀌버렸다. 도림 스님은 해암 스님에게 원각을 소개해주고는 중봉암을 떠나버렸던 것이다.

“중봉암은 두 칸의 암자였지요. 큰방은 인법당이었고, 골방이 딸린 부엌이 있었지요. 종은 마루 서가래 밑에 달려 중상을 할 때는 마루로 나와 했어요.”

해암 스님은 중봉암으로 온 이후 해인총림 선원의 유나 소임을 맡았다. 원각은 중봉암에서 해암 스님과 한방을 사용했다. 해암 스님이 아랫목에서 좌선을 하고 원각이 윗목에서 공부를 했다. 공양 때가 돼 밥을 지어 올리면 방에서는 발우공양을 하고 장작을 꺼가나 밖에서 일할 때는 농구회를 신은 채 부엌에서 함께 앉아 공양했다. 낮에는 주로 일하고 공부는 밤에 했다. 원각은 처음으로 해암 스님에게 <초발심자경문>을 배웠다.

해암 스님은 잠을 자지 않는 장좌불와를 하므로 따라서 원각도 밤을 새워 공부할 때가 많았다. <초발심

자경문>의 뜻을 한두 줄 해석해 주는 스님의 수행담은 날이 새 때까지 계속됐다. ‘스님, 아침 공양 준비하러 나가야 합니다’ 하고 엉덩이를 들쭉거리기 때까지 해암 스님의 장진 이야기는 끝이 없었던 것이다.

원각이 공부한 비를 느낀 대로 색다르게 해석하면 해암 스님은 ‘10년 공부한 수좌보다도 낫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모든 일을 이치에 맞게 하라고 사정없이 야단을 치는 해암 스님으로서의 드문 일이었다.

사소한 것부터 철저히 가르치는 것이 해암 스님의 기풍이었다. 아무리 작은 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제자가 하는 일을 아무 말 없이 보고만 있으면 잘하는 것이었다. 장작을 펠 때도 원각이 도끼를 서투르게 휘두르면 스님이 ‘나이테가 촘촘한 데를 때리지 마라. 나이테가 크게 벌어진 데를 쳐야 나무가 잘 쪼개진다. 단단한 곳과 틀렁한 곳 중에서 어느 곳을 도끼날이 파고들어야 잘 쪼개지겠느냐’ 하고 팔을 걷어 붙였다. 스님의 그러한 지적은 수행도 하나하나 단단하게 다져야 샅된 것이 덤비지 못한다는 뜻도 담겨 있었다.

원각이 사미계를 받는 날이었다. 계를 받는 날은 사가 법명을 지어주는 것이 불가의 관례인데, 해암 스님은 아직 행자인 제자에게 ‘네가 한 번 지어보라’고 시켰다. 그때 20대의 행자는 ‘근본을 깨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원각(源覺)이라고 지었고, 해암 스님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 비로소 원각

은 해인사 선원 유나 해암 스님의 두 번째 상좌가 됐고 고독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

“우리 스님은 안거가 되면 저를 선방으로 가라고 했지요. 암자에서 함께 살다가도 시자가 없으면 불편할 텐데 불질지 않았어요. 안거기간 동안 공부하다가 답답한 것이 생기거나 스님의 안부가 궁금할 때는 편지를 썼습니다. 선방에 다니는 다른 상좌들도 마찬가지로였을 겁니다만 우리 스님과 같이 사는 기간은 산철 때가 대부분이었지요. 하안거, 동안거가 해체되면 스님께 인사드리러 갔다가 함께 산철을 보내곤 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울력을 시키려고 부를 때도 있었지요.”

어둠한 염화살이 환해졌다. 햇살이 염화살의 창호를 비추고 있었다. 원각 스님의 얘기를 듣는 동안 대연 거사의 마음도 해가 하나 푼 듯 밝았다. 원각 스님 앞에 놓인 황토 빛깔의 다기들도 백자의 속살을 드러내며 반짝였다. 대연 거사는 마음에 울림이 있어 지금까지 분위기와 다른 다소 엉뚱한 질문을 했다.

“스님, 재가불자들이 왜 달마선원을 찾아와 참선을 합니까.”

“하하하. 이런 우화가 있지요. 토끼가 낮잠을 자다 도토리에 맞아 놀라서 뛰었는데, 노루와 사슴도 같이 놀라 뛰고 산중의 모든 짐승들이 뒤따라 뛰었어요. 이에 사자가 한 놈을 잡아 물어보니 다른 놈들이 옆에서 뛰니까 덩달아 뛰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왜 뛰는지 물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꼭 그 모양이지요. 그러나 선은 그 반대지요. 자기가 왜 뛰는 지 아는 것이 선이지요. 자기 본정신으로 사는 것, 자기 본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대연 거사는 일어나 큰절을 하고 염화살 큰방을 물러났다. 햇살이 환하게 난반사하고 있었다. 원당암 경내의 모든 것들도 이른 봄의 햇살에 조용하듯 눈부셨다. <계속>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탄에 만연우해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7일 철야 용맹정진 여름 : 음력 7월 1일 ~ 8일 / 겨울 : 음력 12월 1일 ~ 8일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차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 www.wondangam.org

대도를 배우려면  
불을 비벼 내뿜하여  
연기가 나더라도 쉬지를 말지아라.  
불꽃이 나타나는 그때가 되어야만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네.

- 해암 대종사 법어